

2024학년도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자료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가. 디지털 성폭력 특성

- 1) 어디서든 누구든 촬영하고 업로드, 공유할 수 있는 환경 → 대다수가 방관자 또는 가담자가 되기 쉬움
- 2) 다양한 플랫폼, 제목변경, 편집 등으로 유통 범위 무한 확장 → 피해가 발생하면 영원히 끝나지 않음
- 3) 가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을 약화 → 명백한 폭력이 놀이처럼 되어버림

나. 실제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성폭력

- 1) 친밀감(그루밍)의 온라인화
 - 친밀함의 욕구를 악용 “네가 예쁘고 널 사랑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거야”
 - 경제적으로 취약성을 악용 “(성매매를 하면) 큰 돈을 벌게 해줄게”
 - 호기심을 자극 “별거 아니니 (성행동을) 한 번만 해봐”
→ 청소년 대상 온라인그루밍은 협박을 동반한 성착취로 이어질 수 있음
- 2) 게임 내 성폭력
 - 음성채팅 시 목소리를 내면, “여자냐”, “오빠 소리 한번 해봐”, “몇 살이나?” 묻거나 만남을 요구
 - 고정된 성역할 부여 : 장군/영웅은 남성, 여성은 힐러 등 내조
 - 게임 내 여성 혐오 및 성적 대상화
- 3) 단톡방 내 성폭력
 - 촬영물 유포 : 비동의 불법촬영물, 개인간 성적촬영물
 - 성적합성 이미지 유포 : 지인능욕
 - 성적모욕 및 희롱 : 단톡방에서 외모 평가, 성적 발언

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 1) ‘나’의 안전 확인(스마트폰 해킹 당하는 상황이면 GPS를 끄)

- 2) 지금 당장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면 도움 요청

- 도움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경찰 112	학교전담경찰 117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1388
익산 여성의 전화 063-858-9191	
전북 해바라기센터 063-246-1375	

- 3) 수사 증거 수집(가해자의 문자, 통화기록, 대화한 어플리케이션)

- 증거 남기는 방법

- 문제 사이트의 링크, 주소, 채증 시각, 게시글, 영상, 사진 파일 캡처
- 삭제 요청한 증거(삭제되지 않을 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채팅 어플의 메인 파일과 서버저장 파일을 통째로 컴퓨터에 백업

라. 디지털 성범죄 양육자의 실천

내 자녀에게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자녀가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가 되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는 자신이 범죄의 희생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 •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지했더라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음 • 아이는 가해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촬영물 또는 성착취물 다운 받는 것을 멈추고, 이미 다운받은 후라면 절대 유포하지 않고 바로 삭제 • 가해 단톡방에 이미 참여를 하고 있을 때, 참여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양육자가 최대한 노력 • 디지털 성폭력물의 유포 주체가 되어 있을 때,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유포물 삭제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의 가해를 방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양육자는 최고의 조력자 ▶ 영상 또는 이미지가 온라인에 게시된 경우 당황하지 않고, ‘아이들을 지지하고 안심’ 시키는 데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폭력의 성격상, 한 주체에 피해와 가해 상황이 동시에 있을 수 있음을 절대 명심 ▶ 따라서 아이를 질책하는 것보다 해결적 접근 필요

다. 평소 생명의 소중함이나 삶의 의미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해주세요.

- 자녀에게 삶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종종 이야기를 나누어주세요. 때로 뉴스와 미디어에서 사망 사건이 보도되거나 가까운 사람의 상실 이후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들의 발달 수준, 종교, 문화, 가정 내 생명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와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 자신을 존중하는 자녀의 태도는 보호자로부터 비롯됩니다.

- 보호자가 자신과 타인의 삶에 대해 소중하게 여기면, 자녀들도 이를 보고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보호자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될 것입니다.

마. 학교 Wee클래스 이용 안내

- 상담 가능 시간 :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2교시 ~ 6교시(전문상담교사 순회일)**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위기 상담은 예외
- (1) 학생이 직접 담임교사에게 상담 시간을 예약합니다.
- (2) 담임교사와 해당 시간 교과 교사에게 상담 허가를 받은 후 상담이 진행됩니다.
- 위치 : 3층 상담실(Wee클래스)
 *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학생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협, 학교폭력, 학대 등)의 경우, 학교 관계자나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새학기 유행성 감염병

가. 새학기 유행성 감염병 종류 및 주요 증상과 주의사항

수두  미열, 발진, 수포	유행성이하선염(메카라)  발열, 이하선염, 이하선 주위 부종 및 통증
홍역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내 병변(Koplik's spot)	인플루엔자  고열, 두통, 콧물, 기침, 인후통, 구토·설사

○ 주의사항

- 감염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면역이 없는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와 진료 받기
 - 진료 등 외출시에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 자제하기(자차나 도보 이용 권장)
 - 전염기가 지난 후에 등교, 등원하기

• 격리(등교중지) 기간

- 수두 :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 유행성이하선염 : 이하선염 발생 후 5일까지
- 홍역 : 발진 시작된 후 4일까지
- 인플루엔자 : 등교중지 안함, 환자 상태에 따라(의사소견) 필요시 등교중지 실시

나. 유행성 감염병 예방법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특히 수두와 MMR접종 미완료자는 반드시 예방접종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수두는 평생 면역으로, 감염돼도 증상은 가볍게, 감염 전파는 덜 일으킴

감염병	예방법	예방접종 권장 횟수·시기
수두	수두 예방접종	총 1회 (생후 12~15개월)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MMR 예방접종	총 2회 (1차: 생후 12~15개월 / 2차: 4~6세)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매년 1회 (10월~4월)

6. 미세먼지 대응

가. 생활 속 미세먼지 건강수칙

1) 미세먼지 예보에 따라 외출 계획 세우기

① 미세먼지가 **나쁨** 때는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실외 활동량을 줄이기**

② **외출 시**에는 코와 입을 모두 가릴 수 있도록 얼굴에 맞는 **보건용 마스크**를 **밀착**하여 착용



* 마스크 착용 후 호흡곤란, 가슴통증,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마스크를 벗고, 무리하게 착용하지 말아야 함

- 보건용 마스크 : KF80~99 등급의 미세먼지 차단이 가능한 마스크

③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올바른 손씻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함



2) 실내 공기 관리하기



①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짧게라도 자연 환기

② 환기 후 물걸레 청소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

*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 등 오염물질의 축적으로 실내 공기질이 나빠짐

3) 평상시 나의 건강상태 관리하기

① 평소 가지고 있는 질환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며, 면역력 관리에 신경 씀

②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과 과일·채소를 섭취

③ 미세먼지 노출 후,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눈이나 피부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 외출 전 미세먼지 예보 확인

나.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출결관리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러지,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년 초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미세먼지와 연관성이 드러나거나 향후 치료의견 명시될 것)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의사진단서 및 의견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익산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등교시간 전(8시 2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으로 인정가능합니다.